

2017년 12월 18일, 애월읍 하귀2리 김경출 씨 덕, 강경민 조사.
 김경출(남, 1947년생, 애월읍 하귀2리)

- 줄거리: 하귀 사람이 고성리에 다녀오다가 장수물에서 예쁜 여자가 빨래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.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그 여자 앞에 가서 앉았는데 그 여자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.

[제보자] 장수물 잇는다. 여기 사름이 고성 간 오란. 장수물 앞이서. 곱닥헌 아주머가 ‘닥, 닥’ 빨래 막대기를 두드리난. 그 사름이 노랗 허고, 우스갯소리를 잘 허는 사름 이주게. 게난 아주머허고 앓앙 우스게나 허영 가주 허연.
 강 톡 앓으난 사름이 없덴 말이여. 그땐 기겁을 헨 그냥 막 집이 간 쓸을 뿌리고 죽 썩 뿌리고 헤난 적 잇주게.

[조사자] 귀신? 헛거 본거?

[제보자] 장수물에는 귀신이 난덴 허주게.

- 핵심어: 헛게(귀신), 장수물, 아주머니, 빨래, 쓸(쌀)